

기획재정부, 제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

-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 및 MDB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 촉구, 아프리카 개발·성장을 위한 협력 지속 등 발언예정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7.17(목)~7.18(금),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더반(Durban)에서 개최되는 제3차 주요 20개국(이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을 위해 7.15(화) 출국한다.

이번 회의는 금년 G20 의장국인 남아공이 제시한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이라는 슬로건 하에 제1차(남아공 케이프타운), 제2차(미국 워싱턴 D.C.)에 이어 개최되는 제3차 회의로서 총 7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세계경제 현안과 국제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세션1) 세계경제, (세션2) 국제금융체제, (세션3) 인프라, (세션4) 국제조세 (세션5) 아프리카, (세션6) 지속가능금융, (세션7) 금융부문이슈

첫째 날인 7.17(목), 최 차관보는 세션1에서 세계경제 불확실성 고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세션2에서는 지난해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한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7.18(금)에는 제3차 G20 재무장관회의 계기 개최되는 제4차 G7 재무장관회의에 초청국(Outreach country)으로 참석하여, 세션2(의제: 공급망 회복력)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 자세한 회의 내용 및 결과는 추후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다자금융과	책임자	과 장	이재우 (044-215-4810)
		담당자	사무관	안영훈 (anyounghoon@korea.kr)
			사무관	이창선 (dje9350@korea.kr)